

2019년 3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상승 기술주 및 헬스케어 업종 상승 지속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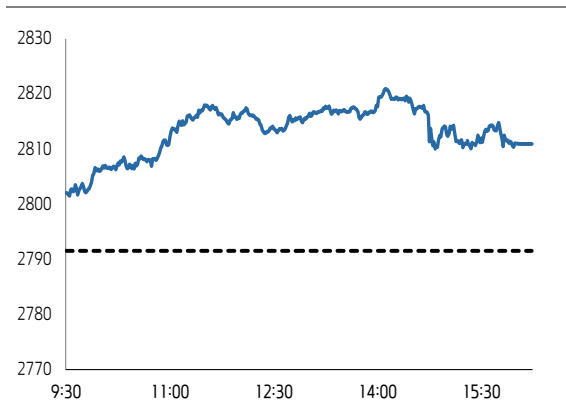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특히 월요일 NVIDIA(+3.75%)가 Mellanox 인수한 이후 데이터 서버 관련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 더불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영향(다우 +0.58%, 나스닥 +0.69%, S&P500 +0.69%, 러셀 2000 +0.39%)

미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상승. 지난 주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줬던 요인 중 하나가 경기 둔화 우려였으나, 미국 소매판매 등 이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됨. 오늘은 1 월 유로존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하자 '유로존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어줌. 더불어 미국의 건설 지출도 전월 대비 1.3% 증가. 특히 공공부문 지출이 전월 대비 4.9%나 급증 하는 등 정부의 인프라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이런 경제지표 결과는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강화

한편, 국제유가는 전일 EIA 가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2019 년 원유 생산량을 지난 2 월 전망보다 0.9% 하향 조정된 하루 1230 만 배럴로 전망. 오늘은 지난주 대비 원유재고가 386 만 배럴 감소하고 가솔린도 462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감축에 이어 미국의 산유량 축소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제유가의 상승하고 있어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표결을 통과 시키는 등 미-중 무역협상,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다만, S&P500 12m Fwd PER 이 5년 평균(16.4배)에 근접한 16.3 배를 기록하고 있어 차익욕구가 높아진 점은 미 증시 상승을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48.41	-0.41	홍콩恒生	28,807.45	-0.39
KOSDAQ	754.89	+0.02	영국	7,159.19	+0.11
DOW	25,702.89	+0.58	독일	11,572.41	+0.42
NASDAQ	7,643.41	+0.69	프랑스	5,306.38	+0.69
S&P 500	2,810.92	+0.69	스페인	9,192.70	+0.34
상하이종합	3,026.95	-1.09	그리스	710.19	+0.89
일본	21,290.24	-0.99	이탈리아	20,749.20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상승 지속

NVIDIA(+3.75%)는 Mellanox 인수 발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데이터서버 산업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였다는 전망이 부각된 데 힘입은 결과였다. 한편, 알파벳(+0.15%), 아마존(+1.06%), MS(+0.77%) 등 대형 기술주도 관련 산업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록 마이크론(-1.07%)은 차익매물로 하락했으나, 인텔(+1.49%), TI(+1.00%)등 반도체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애플(+0.44%)은 중국의 2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6년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애플이 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 매출 둔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큐로브(-0.26%), 스카이웍(-0.60%) 등 애플 부품주는 부진했다.

한편, BOA(+1.21%), 씨티그룹(+1.34%)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코노코필립스(+2.62%), EOG리소스(+1.8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강세 영향을 받아 상승 했다. 유나이티드헬스(+2.59%), CVS헬스(+3.51%) 등은 트럼프의 리베이트 개혁 노력에 발 맞춰 비즈니스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잉(+0.46%)은 트럼프가 보잉737맥스 운행 중단을 발표하자 하락 전환 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1%	대형 가치주 ETF(IVE)	+0.66%
에너지섹터 ETF(OIH)	+1.61%	중형 가치주 ETF(IWS)	+0.52%
소매업체 ETF(XRT)	+0.29%	소형 가치주 ETF(IWN)	+0.36%
금융섹터 ETF(XLF)	+0.68%	대형 성장주 ETF(VUG)	+0.65%
기술섹터 ETF(XLK)	+0.66%	중형 성장주 ETF(IWP)	+0.5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4%	소형 성장주 ETF(IWO)	+0.39%
인터넷업체 ETF(FDN)	+0.62%	배당주 ETF(DVY)	+0.42%
리츠업체 ETF(XLRE)	+0.4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0.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3%
바이오섹터 ETF(IBB)	+1.31%	미국 국채 ETF(IEF)	-0.04%
헬스케어 ETF(XLV)	+1.08%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0.24%	물가연동채 ETF(TIP)	+0.12%
반도체 ETF(SMH)	+0.41%	Long/short ETF(BTAL)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4.96	+1.09%	+0.64%	+2.86%
소재	349.42	+0.53%	+1.59%	+3.27%
산업재	628.04	+0.92%	+0.04%	+0.14%
경소비재	871.21	+0.39%	+0.09%	+1.41%
필수소비재	565.93	+0.70%	+1.57%	+1.30%
헬스케어	1,062.93	+1.10%	+1.91%	+0.94%
금융	437.94	+0.73%	+0.82%	+1.08%
IT	1,263.67	+0.69%	+2.42%	+4.68%
커뮤니케이션	159.17	+0.25%	+1.80%	+4.37%
유틸리티	294.43	+0.15%	+2.13%	+4.18%
부동산	220.88	+0.50%	+2.57%	+3.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경제지표 및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65%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374 계약)에 힘입어 0.95pt 상승한 276.6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한편, 영국 의회가 노딜브렉시트를 거부하는 표결에 찬성한 이후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2월 주요 경제지표다. 최근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 정책 이슈로 연초대비 30% 넘게 급등한 이후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대주주 지분 매각 및 외국인 투자 제한 등 수급적인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면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고정자산투자는 상승한 반면 산업생산, 소매판매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힘입어 상승 출발 이후 한국 시각 11시 중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선물옵션만기일임을 감안 외국인의 수급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산업생산 증가세 전환

1월 미국 내구재주문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가 전월 대비 0.6% 감소였으나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운송을 제외한 내구재주문은 전월 대비 0.1%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운송장비 수주가 증가 요인으로 추정된다.

2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2개월 연속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0.1% 상승해 시장 예상치(+0.2%)를 하회했다.

1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9%)나 예상치(mom +1.0%)를 상회한 수치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재고 감소에 힘입어 2.4% 상승

국제유가는 EIA 가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원유재고가 38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가솔린도 462 만 배럴 감소해 수요 증가 기대감도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달러화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와 파운드화 강세영향으로 약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내구재주문 등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타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가 노딜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영국 의회 표결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점, 유로화가 1 월 산업생산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자 유로존 경기바닥론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및 영국 노딜 브렉시트 표결 부결 등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기물은 생산자물가지수가 0.1% 상승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8% 상승 했으나, 철근은 0.3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8.26	+2.44	+3.63	Dollar Index	96.482	-0.47	-0.40
브렌트유	67.55	+1.32	+2.36	EUR/USD	1.1331	+0.38	+0.21
금	1,309.30	+0.86	+1.69	USD/JPY	111.16	-0.18	-0.55
은	15.456	+0.28	+2.46	GBP/USD	1.3347	+2.08	+1.34
알루미늄	1,905.00	+1.71	+2.09	USD/CHF	1.0032	-0.45	-0.17
전기동	6,472.50	+0.01	+0.07	AUD/USD	0.7096	+0.20	+0.91
아연	2,847.00	+0.32	+2.12	USD/CAD	1.3299	-0.41	-1.06
옥수수	366.50	+0.21	-1.61	USD/BRL	3.813	+0.06	-0.67
밀	447.25	-1.27	-0.61	USD/CNH	6.7022	-0.07	-0.22
대두	901.00	+0.45	-0.11	USD/KRW	1132.60	+0.25	+0.34
커피	97.65	+1.72	-1.06	USD/KRW NDF1M	1129.50	+0.18	+0.1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16	+1.44	-7.75	스페인	1.185	+1.90	+7.50
한국	1.970	-1.50	-5.00	포르투갈	1.340	+0.80	-7.90
일본	-0.042	-1.40	-3.80	그리스	3.817	-5.40	+8.10
독일	0.065	+1.00	-6.30	이탈리아	2.549	+1.10	-3.90